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예배(오전 11시 교육관)가 있는 날입니다. 각 부서의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2016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임원회가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중구용산 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3월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3월 12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3월 19일(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저녁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녁 7:30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3,4월은 김재홍 목사가 <강아지똥 복음서 :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신앙실천사항들을 준수하십시오.

1부 예배	수 5:9-12 / 시 32 고후 5:16-21 / 눅 15:11b-32	2부 예배	사 5:1-7
-------	---	-------	---------

오늘 식당 봉사 :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윤정화 이선영 박범희 조성일 박기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욱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유은정 이순용 임주빈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51-5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5여선교회
떡 대 접 : 조영순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모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사순절 제3주 】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7년 전 식민지배를 받던 이 민족이 떨쳐 일어나 독립과 해방을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자유를 위한 외침과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광야의 예언자들이 외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약한 자를 보듬고 강한 자를 낮추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갈5:24,25 인도자
 ♣ 교 독 문 126. 사순절(3)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대표기도 안길상 권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00. 내 맘이 낙심되며 다 함께
 ♣ 성경봉독 I. 사55:1-9 시63:1-8 눅13:1-9 김윤하 선생
 II. 눅 12:35-40 조항미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주님 사랑 온누리에 찬양대
 말 씀 I.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신진식전도사
 II. 생각하지 않은 때에 김기석 목 사
 거둬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김경혜	김대영	이효심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희	김윤수	김박상호	김재환	김진선	김정린	김정수	김자현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김중현	성귀옥	김철수	유영남	김현영	김주철	김혜선
김훈동	유경순	문홍일	박병구	김인순	박영희	박옥순	박용철	김윤정	서원금
송영광	심화섭	정영란	오슬기	오진훈	노순옥	이광섭	김수연	이유진	이재삼
전정현	이종영	최혜경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현죽	임정경	레장원	오재영	이준림	정복순	정현모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차혜심	노미향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재욱	최현	하정석	이명희	한성건
정지혜	허준호	홍복선	무명						

감사헌금

강금분	강신철	이혜경	곽정자	김남종	오복선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혜정
김해선	박병구	박재영	이현정	오진훈	노순옥	유건형	이주은	이건호	김보민
이계선	이소수	이동준	이효원	임선양	신현숙	장재영	김재영	전인섭	조관행
홍선희	조은상	김소연	조현권	박아영	홍예선	정다운	정이든	무명13	

생일감사헌금

이준용 백묘현

녹색꿈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향자 마준혁 박미희 심화정 정영란 윤미경 윤수진 이고임
 이재린 무명11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문금석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차혜심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박경원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문복순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허정윤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오복순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김필순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강상연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김희우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2016년도 교회학교 교사 명단

교회학교장 : 하현철

유아유치부장 : 권미정 아동부장 : 광권희 청년부장 : 김경연

영아부 : 김수연

유아부 : 최희영 김윤하 박민선

유치부 : 성유경 김동호

아동부 : 연준호 배동준 이자애 하진솔 하진채 박숙미 이선영

중고등부 : 장의림 박숙영 임창국 이부용 이유선

찬양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혼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때를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정신을 맑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지방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민선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송동준 집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범희 박석희 권미숙 성귀옥 박미영 이명희
	헌금위원	김정민 백혜숙

사물에 말걸기

산 입구의 버려진 밭에 푸성귀를 길러 먹고 있다. 20평쯤 될까? 여름에 그곳에 김장용 배추와 무 씨앗을 뿌렸다. 그것이 자라 속이 앓고 있다.

얼마 전부터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다. 배추흰나비 애벌레도 사람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무와 배추를 좋아한다. 다른 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냥 두면 절단이 날 것 같아 처음 며칠은 잡아서 땅 위에 놓고 발로 밟아 죽였다. 작은 것은 손가락으로 문질러 죽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번에는 산 채로 잡아서 멀리 떨어진 풀숲에 갖다 버렸다. 물론 이 방법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빵집에서 맛있게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마존의 정글이나 사하라 사막에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무렵에 한 방문객이 핀드혼 공동체의 방법을 일러줬다.

영국에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작물에 벌레가 생기면 그 벌레에게 말을 건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배추는 우리가 키우는 것이다, 손대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곳에 가서 살기 바란다. 기간은 일주일이다.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큰코다칠 줄 알아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깨우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 배추흰나비 애벌레에게 우리 밭에서 떠나 주기를 부탁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서운하게도 우리 밭의 배추흰나비 애벌레 놈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영어만 알아듣나? 받고

랑을 왔다갔다하며 오래 생각해 보았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생각 끝에 나는 무릎을 쳤다.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래 같이 먹자! 배추 한 고랑을 배추흰나비 애벌레 뚫으로 정했다. 그리고 나는 배추흰나비 애벌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기 저 고랑의 배추가 너희 뚫이다. 저쪽 걸 줄 테니 이쪽은 손대지 마라. 알겠지?”

자,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아 이놈들이 이번에도 못 알아듣고 내 속을 뒤집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말 걸기는 포기했다. 그 대신 우리가 먹어야 할 배추에 자리잡고 있는 애벌레들을 잡아다 그들 뚫으로 정한 배추로 옮겨 놓는 수고를 달게 했다. 그 일은 그런대로 마음이 편했다. 그 작업을 통해 배추흰나비 애벌레하고도 많이 친해졌다.

그렇다고 나는 물론 핀드혼 공동체의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는 2년에 걸쳐서 일본에 살며 일본어를 배워 일본말을 그런대로 하는 편이다, 내가 “여차저차”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이 “여차저차” 움직인다. 학교에 다니며 그렇게 하는데 2년이 걸렸는데, 어찌 벌레와 하루아침에 대화가 통하길 바라랴. 거기다가 벌레는 종이 다르고, 벌레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도 없지 않은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다.

그러나저러나 핀드혼에 가야 하나 좌선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벌레와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라.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 산에 올라가 온 산의 벌레들에게 “야, 이리 나와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소리치면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모여들게 아닌가! 같이 춤도 추고 노래하고, 또 행진도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아, 나는 아무래도 조만간 핀드혼에 가야만 할 것 같다.